

## 한국인 10명 중 6명, 술·커피는 포기해도 모바일 인터넷은 포기 못 한다

- 보스턴컨설팅그룹, 13개국 대상 “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경제의 성장” 보고서 발표
- 13개국 모바일 인터넷 수익은 연간 23% 성장, 2017년 1조 5,500억 달러 예상
- 모바일 인터넷 경제는 한국 GDP의 2% 차지, GDP 기여 규모는 연간 10%씩 성장
- 액면 가치보다 더 크게 느끼는 ‘소비자 잉여’는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, 1인당 4,400 달러

(2015년 3월 3일 - 서울) 구글코리아([www.google.co.kr](http://www.google.co.kr))는 오늘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(BCG)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“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경제의 성장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. BCG는 전 세계 13개국 모바일 인터넷 경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, 한국 모바일 인터넷 경제 현황과 모바일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.

구글은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 BCG에 의뢰하여, 한국·미국·일본 등 총 13개 국의 모바일 인터넷 산업 동향을 조사했다. 오늘-BCG가 발표한 “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경제의 성장(The Growth of the Global Mobile Internet Economy)” 보고서에 따르면, 2013년 한국의 모바일 인터넷 경제 규모는 280억 달러(약 31조 700억 원)로, 한국 국내총생산(GDP)의 약 2%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모바일 인터넷 수익은 2017년까지 연간 23%씩 성장하여 1조 5,500억 달러(약 1,720조 350억 원)에 이를 전망이다.

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상은 스마트 기기와 밀착되어 있어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이미 익숙해진 기존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예를 들어, 한국인의 75% 정도가 모바일 인터넷 이용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신문, 초콜릿, 패스트푸드를 포기하겠다고 응답했고, 60% 정도는 술과 커피를, 20%는 샤워를 포기하겠다고 답했다. (첨부자료 1 그래프 참고)

또한,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화를 구매할 때 생기는 이득을 의미하는 ‘소비자 잉여’는, 한국이 4,400달러(약 488만 원)로 13개 국가 평균인 4,000달러(약 444만 원)보다 높았고, 아시아태평양(APAC) 5개국 평균보다는 50% 높았다.

이날 발표를 맡은 BCG의 최인혁 파트너는 “한국의 모바일 인터넷 경제는 도입된 지 약 5년 만에 한국 GDP의 2%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떠올랐고, 앞으로 더 큰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평가했다.

보고서 발표에 이어 대담자로 나선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정지훈 교수는 “한국의 모바일 인터넷은 스마트폰이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는 짧지만, 폭발적인 성장을 거뒀다”며 “현재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지나친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평했다.

“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경제의 성장” 보고서의 한국 관련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. (첨부자료 2 인포그래픽 참고)

### 한국은 모바일 인터넷 소비자 잉여(Consumer Surplus)가 높은 국가

‘소비자 잉여’란 소비자들이 기기, 앱, 서비스 등에 대해 지불한 것 이상으로 얻은 가치를 의미한다. 예를

들어,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해도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, 실제로는 8만 원을 내고 샀다면 2만 원 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 것이다. 국내 모바일 인터넷 소비자 잉여의 연간 총액은 총 연 1,270억 달러(약 140조 9,300억 원)로 1인당 4,400달러(약 488만 원)이다. 이는 아시아태평양(APAC) 5개국 평균보다 50% 높고 BCG 조사대상 13개국의 평균인 4,000달러(약 444만 원)보다도 높다. 한국인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느끼는 만족과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.

여기에는 탄탄한 IT인프라가 큰 역할을 했다.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4%로, 호주(77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. 또한, 한국은 전체 인구가 4G에 접근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자 절반 이상의 인구(2013년 말 기준)가 실질적으로 4G에 연결돼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.

### 모바일 인터넷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

한국의 모바일 인터넷 경제 규모는 280억 달러(약 31조 700억 원)로, 2013년 한국 국내총생산(GDP)의 약 2%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.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시장 중 한 곳인 한국에서도 모바일 인터넷이 GDP에 기여하는 규모가 연간 약 10%씩 성장, 2017년에는 400억 달러(약 44조 3,900억 원)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.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과 광고에 힘입어, 미래 성장을 가져올 가장 큰 원동력은 앱, 콘텐츠 및 서비스가 될 것이다. 특히 올해 화두인 핀테크(FinTech)를 둘러싼 한국 모바일 상거래는 2017년까지 연간 15%씩 성장하여 70억 달러(약 7조 7,000억 원)에 달할 전망이다.

모바일 인터넷 관련 수출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. 특히,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 부문에서 모바일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. 2013년 조사대상인 13개국에 판매된 스마트 기기 전체의 30% 이상은 삼성 제품으로, 2008년(7.7%)에 비해 점유율이 4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LG전자의 판매량도 5%를 차지하여, 2008년(4%) 대비 점유율이 소폭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.

모바일 인터넷 경제는 소매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. 2014년에는 모바일 상거래 수익이 15% 이상 증가하여 총 규모가 45억 달러(약 4조 9500억 원)에 달했다. 또한,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중심지로, 지난 2년 간 한국 안드로이드 개발사 수는 3배 이상 증가했고, 한국은 세계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사들이 가장 많은 5개국 중 하나가 되었다.

###

### 구글 소개

구글([www.google.com](http://www.google.com))은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. 웹 검색과 광고에서 이룬 혁신으로 구글은 최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되었으며,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다. '구글'은 구글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이며, 그 외 언급된 회사와 제품명은 해당 회사의 상표일 수 있다.

보도자료 문의:	뉴스커뮤니케이션스	6323-5000
	이진혁	6323-5070 / 010-8840-2745
	김고은	6323-5002 / 010-9107-2794

Google

BC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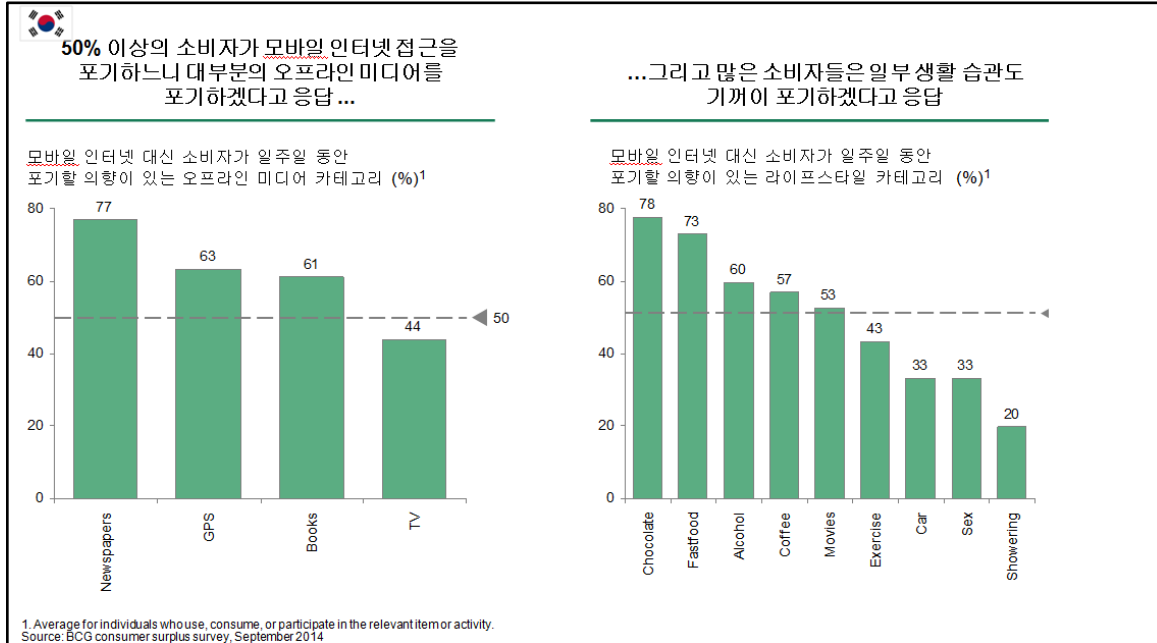
---

나혜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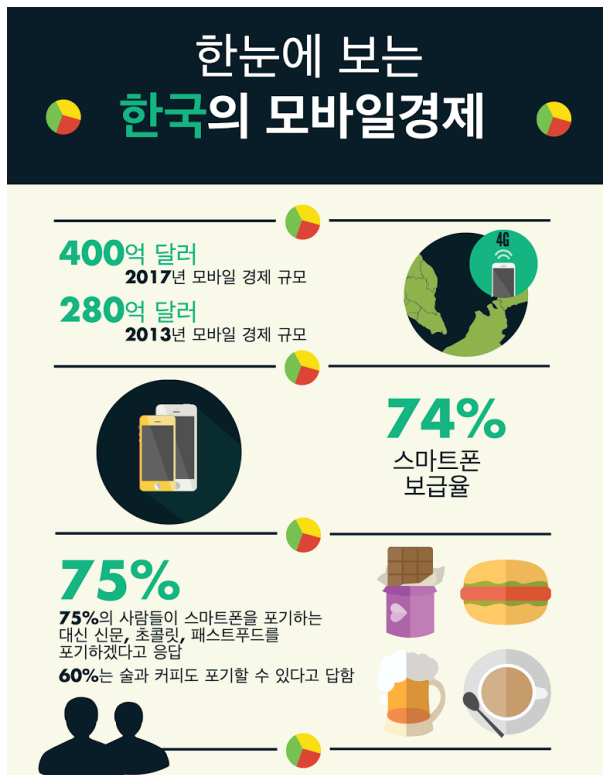
6323-5012 / 010-2432-4143

※첨부자료

첨부자료 1 (그래프): 모바일 인터넷 대신 포기할 미디어와 라이프스타일 (한국사용자 대상 조사 결과)



첨부자료 2 (인포그래픽): 한눈에 보는 한국의 모바일경제



첨부자료 3: [BCG 보고서 요약본](#) (주요 수치 포함)